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No. 52

IIIRI Online Series

미국-사우디아라비아 관계와 군사동맹의 의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2019. 10. 30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미국-사우디아라비아 관계와 군사동맹의 의미



인 남 식 | 국립외교원 교수

냉전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였다. 대소 봉쇄 정책의 연결망 중 가장 약한 고리였던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는 초지일관 자유진영의 편이었다. 이슬람의 종주국이자, 석유의 집산지 그리고 걸프 아랍 왕정의 선도국이라는 3대 자산은 미국이 사우디를 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무엇보다 호메이니 혁명으로 핵심 파트너인 이란이 순식간에 적대국으로 바뀌고, 소련 붉은 군대의 아프간 진주로 판이 흔들리던 1979년,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은 급등했다.

미국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아랍 민족주의의 부상과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출 전략으로 인해 왕국이 흔들릴 때 미국의 군사력은 늘 든든한 힘이였다. 절대 왕정의 특성상 내부 민심 이반을 늘 신경 써야 했던 사우디로서는 미국의 정보 협력은 절대적이였다. 냉전 해체 이후에도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굳건했다. 무자히딘 출신으로 귀국한 반정부 불온 세력들의 민심이반 동향을 추적 관리하는 데 미국의 정보자산은 필수였다.

양국 관계의 절정은 걸프전(1991.1~2)이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다국적군과 함께 이라크를 공격했다. 사우디도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이라크 공격에 함께 했다. 사담의 쿠웨이트 침공은 불법적이었고 지탄받을만한 행동이었다. 아랍이 아랍을 공격하여

영토 병합을 노렸던 첫 사례였다. 그러나 사우디의 걸프전 참전 역시 아랍 이슬람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을 자임하는 사우디가 수니파 이슬람 공화정인 사담과의 전쟁에 이교도 미국과 함께 들어간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지역의 비난을 감수할 만큼 사우디와 미국은 공동운명체에 가까웠다.

물샬틈없다고 자신했던 양국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시점부터다. 사건의 주범 알카에다의 핵심 멤버 19명 중 14명이 사우디 국적이었고 5명이 이집트 출신이었다. 테러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전체 테러범 중 4분의 3이 맹방 사우디 출신이었다는 점은 미국의 중동외교 전략에 심각한 회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추진하자 사우디 왕실은 다란과 담맘에 주둔하던 미 공군을 퇴거시켰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폭격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던 공군기지였다. 미군으로서는 전쟁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기지였지만 사우디측은 단호했다. 자국 내 반왕실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교도 미국이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장면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분노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발로였다. 이 정도면 동맹은커녕 우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위기 징후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특이했다. 오히려 더욱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비록 정책적인 마찰은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와 사우디 왕실 간의 친밀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20년 넘게 재임한 반다르 빈 술탄 주미대사는 시니어 부시의 양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거리낌 없이 백악관과 소통했다. 최대 산유국 왕실과 텍사스 출신 정치 명문가 부시 가문의 관계는 돈독했다. 따라서 사우디 왕실의 미군기지 철수요구는 충격적이었지만,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그 결과 기존의 군사협력과 안보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이라는 최대 위기를 양국은 큰 마찰 없이 넘겼다.

심각한 위기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에서의 기존 동맹 전략을 뒤집고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오바마는 관성보다는 변화를 원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중동 개입은 실익보다 위해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사우디의 위기감은 고조되었다. 절정은 2015년 7월 이란과의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었다. 미국은 어차피 이란의 핵보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택할 수는 없기에 차라리 합의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자는 입장이었다. 자본과 인력이 들어가면 이란 체제에도 형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했다. 10년 내지 15년의 일몰 조항이 담긴 배경이다. 그러나 사우디의 눈에는 최대 위협 세력인 이란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정상국가로 만들어 주자는 수순으로 보였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핵을 가진 이란보다 정상화한 이란이 더 큰 위협이었다. 왕실 안정성에 대한 위협은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혁명을 국시로 하는 이슬람 공화정의 영향력이었기 때문이었다. 위협 인식의 공유가 동맹의 기저라면 적어도 오바마의 미국은 사우디 왕실의 위기의식에 전혀 공조해주지 않은 셈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변화를 체감했다.

미국 역시 사우디의 존재 자체가 일정 정도 부담이었다. 미국은 이란 적대시 정책을 중동외교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정치체제, 여성인권, 교육수준, 일반민도 등 여러 면에서 이란보다 결코 나을 게 없었던 사우디와 돈독하게 지내면서 중동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제약이 있었다. 부시 가문의 친(親)사우디 정서와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 동맹으로서의 국가 성격, 안보협력 실익 등 여러 면에서 사우디를 포용할 이유가 약했다. 사우디의 미래 권력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국가 개조에 나서 자유화와 세속화 조치들을 파격적으로 진행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국제 가치 표준과의 공조 노력도 한몫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사우디는 한숨 돌리긴 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다. 미국 대통령 해외 첫 순방을 사우디로 이끌어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고, 왕실에 대한 안정적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심지어 이란 핵

합의도 파기했다. 사우디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만 했다. 물론 지불해야 할 대가는 1천억 불이 넘는 무기 구매 양해각서였다. 이제는 철저하게 계산서가 오고 가는 관계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껴름칙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사우디와의 긴밀한 협력을 복원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은 사우디와 견원지간인 카타르에게도 바로 무기판매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국익 증진을 자랑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사우디보다 더 군사동맹 차원에서 밀접한 나라는 미 중부군 작전사령부가 설치되어 있고 사우디에서 나온 미 공군을 자국의 알 우데이드(Al Udeid) 기지로 받아들이는 카타르 아니던가? 사우디는 트럼프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확실히 바뀐 미국을 보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사우디 세 번째 규모의 쿠라이스(Khuraish) 유전과 최대 정유시설 아브카이크(Abqaiq)가 공격을 받았다. 쿠라이스는 수도 리야드 방공망이, 아브카이크는 다란과 담맘의 중첩 방공망이 설치된 지역이었기에 충격의 강도는 매우 높았다. 둘 다 미국이 깔아놓은 PAC2 패트리엇 방공망이 있었다. 북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드론 (또는 저고도 순항미사일) 공격에 수도와 최대 정유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모습에 왕실의 우려는 최고조에 달한 듯 보인다. 당장 미국의 최신 방공레이더를 들여오느라 부산을 떨었지만 아마 왕실은 차제에 대미 의존 안보협력을 넘어서는 승부수를 고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더이상 미국만 믿고 있기에는 여러모로 위험하다는 의식이다. 미국이 시리아 철군을 선언하면서 미군 앞에서 피 흘리며 IS와 싸운 쿠르드를 순식간에 위기에 빠뜨리는 모습을 생생히 목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러시아 방공망을 들여오면서 미국과 각을 세우는 나토(NATO) 회원국 터키의 모습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듯하다.

애초부터 국가 성격상 가장 대척점에 있는 맹방이 바로 미국과 사우디였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수호자를 자임해 온 미국과 중세적 정치질서와 이슬람 신정주의를 유지하는 사우디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기이하다. 냉전과 같은 고착된 국제관계의 틀이나 리더십의 친밀감으로 이어져 온 안보협력 관계 모두 이제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 트럼프처럼

거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도자와의 협상은 섀범의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음을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각국의 동맹 패턴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도 예외는 아니다. 혈맹, 전우, 가치 등 기존 한미동맹을 구성해왔던 요소들은 적어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수사학 수준으로 내려앉은 느낌이다. 눈앞에 보이는 악마적 세력인 IS와의 전투에서 1만 천명의 목숨을 잃으면서 미군 대신 싸워준 쿠르드 민병대도 가차 없이 위협으로 빠뜨리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앓는 미국이다.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행위 뒤에 청구서가 따라붙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내정치가 대외정책의 독립변수임은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는 시리아 철군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국내 여론의 58%는 철군을 지지하고 있다. 동맹 역시 국내 정치의 이익 계산 여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안정감을 주는 수사학 차원의 한미동맹은 이제 잊어야 한다. 미국 내 여론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차갑기 그지없는 국제정치의 민낯을 이제 담담히 마주해야 한다. 때론 계산서 정확히 펴들고 따지기도 하고, 때론 줄 것 과감히 주고, 또 그만큼 받을 것 확실히 챙겨 받는 거래에 익숙해져야 할 때다. 이심전심은 이제 더이상 동맹에 유효하지 않은 단어가 된 듯하다.

/끝/

저자 소개

인남식 교수는 영국 더럼대학(University of Durham) 중동이슬람연구원에서 중동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립외교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중동 이슬람권 국제정치, 미국의 대외정책,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분쟁의 이해(2000)”,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의 전망과 함의(2004)”, “파키스탄과 미국의 딜레마(2008)”, “자발적 네트워크 테러리즘의 등장과 의미(2009)”, “21세기 국제안보의 도전과 과제(2011)”, “현대외교정책론(2016)”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Email: in@mofa.go.kr)